



종조 멸도절 종령 법어



공정진에 매진하신 점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정진 수행과 함께 철저한 계행은 청정도량, 청정한 불자 가정으로 거듭 날 것을 역설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행과 정진, 일체중생의 제도는 승단과 교도 등 모든 종도들의 본분사(本分事)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밀교의 대표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조님의 열반을 마음깊이 추선(追善)합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의 법맥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大道)를 열어 급변하는 시대에 적실(適實)하고 잠신(斬新)한 수행법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대비원력(大悲願力)으로써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

그동안 승단과 교도들이 원정 종조님의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력을 계승하여 정진과 수행으로써 오늘의 총지종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조님께서 한국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시면서 사사불공(事事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 시시불공(時時佛供),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을 교상으로 삼으시며 이미 47년 전에 '생활불교'를 주창하셨습니...

오늘날, 종조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밀교의 수승한 수행법은 감격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정재(淨財)를 귀중히 여기신 점은 큰 가르침으로 남습니다. 정재는 청정 도량으로 가는 길이요, 지계(持戒)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단의 재단법인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재이므로 더욱 필요한 불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단과 교도들이 함께 의논하고 정진하셨다는 점은 종단의 민주화를 숭선수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철주야 불

따라서 제38주년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추선불사를 올리는 뜻은 불퇴전의 정신으로 종단의 중흥을 이루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세워 모든 종도가 하나가 되어 매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수행 정진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심신이 맑지 않으면 악업에 끌리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여 진언연송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불공기도, 염송과 함께 일일일선(一日一善)이라도 선행을 생활화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실천입니다. 이것은 나의 수행임과 동시에 불은(佛恩)과 종조님의 은혜에 보은(報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서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범회가 바로 그 법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조님의 열반일을 맞아 다시 한번 웃음을 머미고 승단과 교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종조님의 열반을 추선함은 물론, 종단의 유구한 발전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다함께 수행정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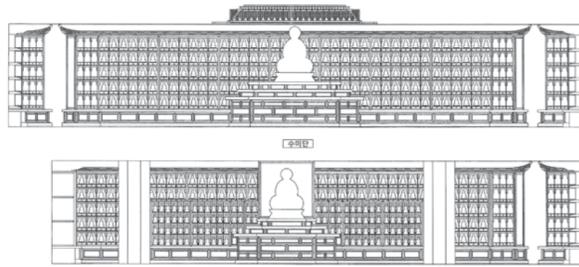
종조멸도절의 추선불사에 동참하신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 각자님들의 수행과 정진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더불어 가지신력이 원만 구족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움마니반메흠.

종령 법공 합장

총지종 정각사 특락전 조성불사

아미타 3존불 1.315존 원불에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 정각사 특락전 조성불사(수미단, 지장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부산 정각사 특락전 조성불사 안건을 상정하여 7월 종의회 심의를 거쳐 가결되므로 조성불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정각사 특락전 조성불사는 연리지 불교공에서 이남형 대표가 책임을 맡아 조성하게 되었다. 정각사 특락전 조성불사 기간은 8월 20일부터 총기 48년(2019) 1월말에서 2월초쯤에 완공된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정각사 2층에 조성되는 특락전은 아미타 3존불과 1,315존 원불을 모시게 됨으로

불자들의 염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성되는 정각사 특락전은 정면에 아미타부처님을 주불로 하고 좌우 협시불로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구조로 밀교의 만다라세계를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모셔진다. 외벽 쪽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 원불을 모시는 감실이 배치되고, 그 앞쪽에 통로를 두고 좌로는 관세음보살 원불, 우로는 지장보살 원불을 감실에 모신다. 특락전 내부로 들어서면, 좌우로

다용도장을 설치하여 교도들이 필요로 하는 경전, 방석등을 진열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아미타불단은 높이 3단으로 구성되어지고 전후좌우 어디서든 예불과 예경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다.

좌측관음단 관세음보살은 높이 3단으로 조성되며, 전면과 측면 총 3면으로 배치되고 단의 좌우와 뒤쪽으로는 소원을 이뤄주시는 작은 관음보살 개인 원불을 불감실에 모신다.

우측 지장단 지장보살도 3단의 높이로 조성되며, 관음단과 정면에 배치된다.

지장단 좌우와 뒤쪽에는 작은 지장보살 개인 원불을 불감실에 모신다.

외벽 쪽 불감실에는 영가들의 영전사진과 기념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서랍을 설치하여 살아생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입구쪽에서 수미단까지 일직선 상의 천정 다섯 곳에 설치된 중간중

간에 우물반자를 두어 점진적으로 격이 높아지며 승화되는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구현하게 된다.

단집내부에는 극락세계의 하늘 연꽃 밭과 봉황, 하늘 연꽃과 구름을 조각하고 단청하여 극락세계의 화려함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아미타부처님 위의 단집에는 천왕이 여의주를 희롱하며 구름 속을 날아다니며 부처님을 호법하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단청으로 장엄함으로써 성불의 단계를 표현할 예정이다.

연리지 불교공에서 이남형 대표는 "부처님 법당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옛 장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혼을 현 불교 공예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공예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통리원장 인선정사님과 종단스승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정각사 특락전 불사에 남다른 기대감을 전했다.

취재=강동화

사회복지재단, 탈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정사, 수서경찰서장 만나 지원금 전달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8월 8일 수서경찰서장에게 탈북자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지원금 300만원과 쌀 120kg를 탈북자 10명에게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정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총지종은 뭐든지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회향하는 길이라고 생

각합니다. 항상 힘닿는데 까지 돕겠습니다."며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였다. 수서경찰서 홍명근 서장은 "총지종 종단에서 소중히 마음을 전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쁘고 그 마음 잘 받아 탈북자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며 감사를 전했다.



취재=김태원

종/조/법/어

전생 인을 알려하면 금세 받은 그것ियो 내생 과를 알려하면 금세 짓는 그것이다.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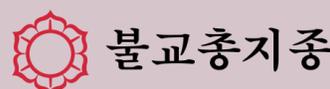
3면 인간방생비 기부 6면 자석사 탐방 11면 통신원소식 12면 러시아 여행기



제38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일시 : 총기 47년 9월 8일 오후 2시
장소 : 총지사 원정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65년, 기다림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헤어져야 했던 혈육과 만나다



가족 89명이 상봉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8시 30분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북측 가족들을 만나러 출발했다.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오후 3시 금강산 호텔에서 열리는 “단체상봉”을 통해 북측 가족과 꿈에 그리던 첫 만남을 가졌다.

둘쨋날에는 2시간의 개별상봉에 이어 1시간 동안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가족이 오붓하게 따로 식사하는 건 이번 행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6회, 총 11시간에 걸쳐 상봉했다.

8월 24일부터는 2차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다.

방북을 앞둔 남측 가족들이 속초리조트에 모여 등록 절차를 받고, 방북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헤어져야 했던 남북 이산가족이 8월 20일에 혈육과 만남을 가졌다.

금강산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됐다.

앞서 남북은 6월 적십자 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8.15를 계기로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측 이산가족 879명이 북측가족과 상봉하는 1차(20~22일)와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가족과 만나는 2차(24~26일)로 나누어 진행됐다.

2015년에 이어 3년여 만이다. 이번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일부터 일정에 들어가 22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남측 이산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선거 9월 28일 확정

중앙선관위 회의서 결정... 입후보 등록기간 9월 4~6일

제35대 총무원장 설성 스님의 사퇴에 따라 60일내 차기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조계종이 9월 28일 선거를 실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본과 회의실에서 제34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제36대 총무원장선거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무원장선거일은 9월 28일, 입후보 등록기간은 9월 4~6일이다. 총무원장선거 출마 자격은 승랍 30년·연령 50세·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중앙종회의장·호계원

장·교육원장·포교원장을 역임하거나 △교구본사주지 4년 △중앙총무기관부·실장급 이상 총무원 2년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한 자, 각급 중정기관 위원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는 9월 13~17일 본사별로 개최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12일 진행되며, 자격심사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법에서 정한 토론회외 집회 개최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할

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 당일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선거인단 240명 등 최대 321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제36대 총무원장이 확정되고,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는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봉은사 판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추사 숨결이 살아있는 판전(板殿)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생전 글씨가 현판으로 걸린 강남 봉은사 판전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25호로 지정됐다.

봉은사는 “판전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자 추사 김정희가 입적을 앞두고 마지막 글씨를 현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봉은사 판전은 1856년에 만들어져 1879년에 중수된 단층 맞배집의 목조 건축물로, 봉은사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한번쯤은 들리는 명소로도 유명하다.

특히 판전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4호 ‘대방광불화엄경수초연의초’ 목판을 비롯해, 3500여 개의 방대한 수량의 목판이 소장돼 있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관하는 장경각인 동시에 예불을 드리는 불전으로 경관보관 및 예불 기능을 병용하기 위해



독특한 창호 구성을 갖췄는 등 건축적 희소성이 있다”며 문화재 지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봉은사는 지난 2016년에 봉은사 판

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판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재 지정을 이끌어 냈다.

불교스카우트 국제파트너십 캠프 참가

불교문화 알리며 세계청소년들과 우의를 나뉨

불교스카우트 대원들이 불교문화를 알리며 45개국 6500여 청소년들과 우의를 나눴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형 스님)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파트너십캠프에 95명의 불교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을 파견했다. 또 대회장 내에 잼버리법당을 마련해

함장주 만들기과 태극부채 꾸미기, 아침예불, 일요법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이화정 대원(화성 와우중3)은 “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단합도 되고 얘기도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선 대원(화성 기안중3)도 “잼버리에 참가해보니까 모두가 하나 되고 통합되는 느낌이였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게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잼버리 불교 종교관광 명원스님은 “종교관의 법당을 찾는 아이들에게 삼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직접 함장주를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니도록 안내했다. 자연스럽게 한국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와세다대 불자 교우회 협약 체결

한·일 불교 지성인 교류 활성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인 고려대와 와세다대 불자 교우회는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족사학 고려대 출신 불자들의 모임인 고려대 불자 교우회가 일본의 명문 사학인 와세다대 불자 교우회 불교도문화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두 단체는 우호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한·일 불교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양국을 대표하는 불자 지성인들이 공식적으로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각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 최평규 회장은 “양 학교 불자들이 상호 우호와 교류, 협력을 위한 오늘 성명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결실을 맺게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하게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고대 불자교우회가 될 겁니다.”며

전했다. 특히, 협약식에는 불교 영화 ‘선’의 원작자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의 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조동종의 원로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타니 테츠오 스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와세다 대학 교우회 불교도문화회 회장을 맡고 있다.

스님의 이번 방문은 고려대 교우회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봉은사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일본 조동종 원로·와세다대학 교우회 불교도문화회장 오타니 테츠오 스님은 “불교의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같은 불자로서 뜻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교류 협약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협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며 전했다.

한·일 불교 발전은 물론 한국 불교 신령 문화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망이다.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발전협의체 구성

문수사·아도문화진흥원·인근 대학 등 5개 관련 단체와 발전협의체 구성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67번지 일대에 신라불교가 처음으로 전래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신라불교초전지가 시민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신라불교초전지가 ‘초전지 발전협의체’를 발족시키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회원단체는 아도모레원, 도개문수사, 아도문화진흥원, 경북과학대학 겨레문화사업단, 초전지정보하마 등 5개 단체이다.

이들은 7월 31일 구미시설공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회원기관 간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신라불교초전지를 중심으로 특화된 불교·사찰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과 함께 지난 8월 7일 실무자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앞으로의 초전지 운영과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기도 했다.

작년 10월 13일 개관한 신라불교초전지는 1만1000평의 부지에 기념관, 전통한옥체험관, 사찰음식체험관, 단체생활관 전시가옥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개관과 동시에 시민의 발길이 이어져 2018년 현재 2만40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특히 가장 인기가 좋은 전통한옥 숙박 체험은 주말이면 전 객실이 꽉 들어차 시민들은 도심의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청결하고 멋있는 한옥의 정취 속에 그야말로 힐링을 하고 돌아간다.

구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신라불교초전지는 전통한옥 숙박체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침포 하나’ 1박2일 불

교체험, 사찰음식체험을 진행하고 떡매치기·화전부치기·부채만들기·옥수수파기 등 가족형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초전지발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더욱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성 발굴하는 등 전문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성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시민문화센터로서의 변모를 준비하는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는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꿈꾸고 있다.

“지리산 선승” 원응스님, 영결·다비식 봉행

사경통선 ‘80화엄 전권 금니사경’ 큰 발자취...



사경수행으로 널리 알려진 경남 함양 서암정사 원응 스님이 지난 15일 세수 84세, 법랍 66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

었다. 원응 스님은 1954년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지리산

벽송사에서 수행하다 서암정사를 창건해 그동안 사경수행에 매진해왔다.

원응 스님은 사경통선(寫經通禪)의 수행으로 고려시대 이후 최초로 80화엄 전권을 15년에 걸쳐 먹사경과 금니사경으로 완성했으며 중국과 대만,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통해 극찬을 받은바 있다.

원응 스님은 “밝고 밝은 신명난 근원의 본체는 고요하며 머무는 바가 없다. 자체는 형색도 없으니 인연 따라 온갖 것을 알 뿐이니라”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원응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19일 오전 함양 서암정사에서 봉행됐다.

기로스승 원봉 정사 49재 봉행

총지종 수인사에서 전국 스승 및 교도 동참



지난 6월 25일 열반에 든 기로스승 원봉 정사의 49재가 경북 수인사에서 봉행됐다. 49재는 8월 11일 수인사 서원당에서 주교 안성 정사의 집공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법회에는 종령 법공 대종사를 비롯

총리원장 인선 정사와 전국 스승 및 교도, 합창단이 동참했다.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평생을 수행과 교화에 임하시던 원봉 정사님의 높은 공덕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정리하시고 서방정토로 가셨습

니다. 부디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먼길 마다않고 참석 해주신 스승 및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49재에 동참한 스승 및 교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승단을 대표해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가 추도사를 낭독하여 원봉 정사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기로스승 원봉 정사는 1932년에 태어나 1981년 총지종 대법사로 입교하여 승천사, 국광사, 수인사, 실보사 주교를 맡아 수행하였다. 1985년부터 종회의원, 총무부장, 사감원장, 대구경북교구장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37년간 교회사승으로 몸담았으며 경주승천사에서 입적하였다.

취재=강동화

대구·경북 금강합창단 “제1회 금강합창제 개최”

단독음악제 개최를 위해 맹연습 중



대구·경북 금강합창단이 총기 47년 11월에 제1회 금강합창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금강합창제는 합창 단장을 비롯해 단원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 합창단의 발전과 화합 단결을 기대하고, 합창제를 통해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총지종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자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대구·경북 합창단 곡노선 단장은 “이번 금강합창제는 다른 교구 합창단과 합동으로 하는 음악제가 아닌 금강합창단 단독으로 개최하는 합창제로서 제1회인 만큼 아주 뜻깊은 합창제가 될 것 입니다. 저희 단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합창을 하면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이 즐거움을 주변 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단장으로서 너무 자랑

스럽고 금강합창단 단원들께 감사합니다.”며 합창제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금강합창단은 총기16년(1987년) 총지종 제1회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를 계기로 대구합창단(구 개천사합창단)을 개설하였으며, 창설당시 15명의 단원으로 개천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제2회 합창대회부터 단원이 32명으로 늘어나면서 총기 40년 제1회 통일음

악예술제때 단원모집을 대구·경북으로 확대하면서 합창단명을 금강합창단으로 개명하였다.

대구·경북 교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고 있으며, 합창단 인원은 35명 내외로 정해져있다. 연습은 대구 개천사 합창단실에서 매주 자정일에 모여서 연습을 한다.

취재=강동화

동국대학교 인문학 교양강좌를 맡다

법경 밀교연구소장, 『불교와 인간』 교양과목 강의

총지종 법경 밀교연구소장은 동국대학교에서 개설한 2018학년도 2학기 인문학 교양강좌를 맡는다. 강의 과목은 『불교와 인간』이다. 본 강좌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인문학으로서의 불교에 접근한다. 강좌의 목적은 강의를 통해 스스로 세계관과 인생관

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불교종립학교로서 학부생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와 인간』은 인도와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전통을 조망함으로써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인문학

적 교양과 안목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강좌는 강의와 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16주의 일정으로 매주 진행된다. 법경 정사는 금년 2월 동국대학교에서 『대일경 계율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해중 이사회 개최

2차 추경예산 및 정관변경, 교장 중임건 심의 가결

총기 47년 8월 10일 총지종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정사는 동해중법인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동해중학교 2차 추경예산안 및 정관변경, 교장중임건으로 심의 가결되었다. 2차 추경 예산안으로 5억4천만 원을 심의하고 가결

하였다. 정관변경은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에서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로 변경, 10인 이내의 교원에서 7인 이내’로 변경되었다. 신실조항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8

항에 의거 평생학습을 위한 자기개발 휴가를 준다.”가 추가되었다. 탁상달 교장 중임 건으로 총기 48년(2019) 8월 31일 정년퇴임까지 1년간 탁상달 교장선생을 중임하기로 의결하였다.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방생비 성금 기부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인간방생비로 부처님뜻 이뤄



불교총지종은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때 인간방생비를 성금으로 모아 기부하고 있다. 전국 각 교구별 신정회 중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는 총기 45년부터 47년까지 일천오백여만 원 성금을 기부했다.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는 정기적으로 바라밀 불우이웃돕기에 매월 200만

원, 분기별로 바라밀 공부방 돕기에 60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 총기 46년에는 인간방생을 주제로 인간 방생비를 노인요양원에 시설확충을 위한 집대구입비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총지종 통일합창제 100만 원, 제12회 경로법회 150만 원, 각 사원

현공불사 100만 원 등 매년 방생비 성금을 통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부산경남 지회는 밝혔다.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류길자 부회장은 “저희 신정회 지회는 부산·경남 각 사원 신정회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인간 방생비 성금을 뜻깊은 곳에 쓰려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생비 성금에는 보이지 않는 지회간부들의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바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이라 생각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실천 하겠습니다.”며 지회 인간 방생비 지원처를 밝혔다. 불교총지종 신정회 지회는 부처님의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간식 지원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여름 보양식 지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5곳에 여름 간식을 지원했다. 냉면, 만두, 수박, 닭죽, 전복, 잡곡밥 등을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여름보양식으로 간식을 지원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정사는 “오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

린이집 교직원들과 원생들이 맛있는 간식과 보양식을 먹으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며 격려했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든든한 총지종 이사장님의 시원한 지원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 잘 먹고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무 범명 수여

총기 47년 8월 6일, 종령 법공 대종사는 총리원에서 시무들에게 범명을 수여했다. 선림사 석동훈 시무-도관(道觀) 정각사 박상환 시무-도신(道信) 정각사 김사운 시무-명진(明眞) 총지사 김진경 시무-묘관(妙觀)

정각사 문화센터

<h3>한국화(천아트)</h3> <p>수요일 14시~16시</p> <p>강사 : 안정은 반장 : 이상록</p>	<h3>다도</h3> <p>금요일 13시~15시</p> <p>강사 : 김정애 반장 : 김윤경</p>	<h3>스포츠댄스</h3> <p>화요일 13시~15시</p> <p>강사 : 소복달 반장 : 이영조</p>	<h3>만다라합창단</h3> <p>화요일 10시 30분~12시30분</p> <p>지휘자 : 박윤규 반주자 : 김옥희</p>	<h3>불교교리</h3> <p>월요일 15시~16시</p> <p>강사 : 강경중</p>
---	---	--	--	--

수인사 문화센터

약선식 사찰요리

수요일
정오 12시 ~ 오후 1시 30분
강사 : 박금화

불교총지종 수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덕산동)
전화 : 054-247-7613

불교총지종 정각사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칼럼 지혜의 눈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법신 · 보신 · 화신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서로 땅을 뺏고 빼앗기는 게 일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대기 위해서 서민들은 갖은 핍박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부족한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괴로운 것은 피지배층이었습니다. 살아서도 이렇게 괴로운데, 죽으면 더 괴롭지 않겠느냐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시대를 바꾸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줄 무언가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바야흐로 사회의 화합을 위해 종교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털 고생하게끔, 해탈을 시켜주는 구원자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등장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따르고 경배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어떤 힘든 일이 닥칠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입 밖으로 이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전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삶과는 달리 전설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신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설 속 인물도 아니고 신화에 나타나는 신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그려지는 걸까요? 학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구원해 줄 누군가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고통에서 구제해 줄 초인적인 존재를 기다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처님을 신화나 전설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신격화된 부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닐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설득의 증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신처럼 여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다양한 수행 이야기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부처님에게는 수만 번의 수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깨달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전생 이야기는 수만 번의 수행 끝에 진리를 찾는 여정과 비슷한 형상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해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거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생에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극복했기 때문에 비로소 완벽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카타’라고도 불리는데 인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설화와 민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집결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경전에도 등장하는 우화 하나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가난한 행인 하나가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숲길에 쓰러졌습니다. 동물들은 그 행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먹잇감의 일부를 행인 곁에 두었습니다. 새들은 힘겹게 구한 열매를 모아 행인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도 행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고 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풀을 좋아하지만 쓰러진 이에게 풀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토끼는 작은 나뭇가지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을 지켰습니다. 빨간 불꽃이 타오르자 자신의 몸을 그슬렸습니다. ‘제 몸을 드세요.’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생각하는 토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이솝우화의 원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전생인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게 더 유의할 것 같습니다.

화신에 대해 알아보시다. 수많은 공덕을 지은 부처님은 수행을 함으로, 이 땅에 화신으로 왔습니다. 화신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으로 변해서 이 땅에 왔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다른 형상이었다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 왔음을 뜻합니다. 화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가지고 있던 부처님의 본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법신과 보신, 화신입니다.

법신이란,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로만 있는 것을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이나 세상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는 곳에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삼라만상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진리 그 자체로 계셨던 부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불이란 인간의 몸으로 다가와준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가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양이 없고, 손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성만 있습니다. 반면 화신불은 인간의 몸으로 형상을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유한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80세의 나이에 열반을 합니다. 생(生)이 다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법신과 화신 사이에 있는 것이 보신불입니다.

서원을 세우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공덕을 쌓아야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처가 된 사람들을 보신불이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자면 극락세계를 만든 아미타 부처님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중생들 모두가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극락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의 주인이 된 부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아비타불,은 아미타 부처님이 그 기원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세상의 질병을 소멸시켜준다는 약사불이 있습니다. 보신불의 의미를 생각하면,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은 단연 화신불로서의 석가모니이지만, 법신과 보신과 같은 다른 부처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화신불로의 석가모니는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형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병이 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고,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충족을 줄 수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다른 해결책이 되어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향상일로(向上一路), 창조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길

“진정한 안심입명처로서 ‘자귀의 법귀의’가 대안”
“창조적으로 생각 드러내가는 향상일로 걸을 뿐”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며 문득 인생과 세월의 무상(無常)함을 일깨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세월 속에 묻혀버리라는 인생 사이기에 아쉬운 감정과 속시원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런 저런 방향을 하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다는 소식에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다.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했지만 생각을 할 줄 안다는데서 인류 문명은 다른 생명체를 압도했다. 하지만 인간에게 생각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생각 하나, 마음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최근 마음 수련이나 명상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생각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철학의 빈곤’이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다.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마르크스가 무정부주의자인 프루통을 철학이 빈곤하다고 비판했다지만,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신은 옳고 다른 이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데 자기는 늘 옳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마르크스 자신 또한 철학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닐까.

생각을 좁고 알고 가깝게만 하면 그런 정도의 속 좁은 주체가 형성되며, 연륜과 수행을 더하여 생각 능력이 커질수록 인격도 깊어진다. 따라서 자신과 세계가 어떠한지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때 바람직한 주체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자신에 대한 태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현실 속의 인간은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 같다. 지나치게 주체에 집착하던지, 반대로 주체성 상실에 가깝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던지.

첫 번째는 ‘생각하는 자아상’에 매여 주체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고집에

빠지는 경우이다. 또 두 번째는 주체성을 외부 존재에 맡기거나 외계대상에 대한 탐욕에 빠져 주체성을 아예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극단의 양변에 위치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적당히 입장을 바꾸는 절충을 뜻한다.

위의 어떤 경우도 완벽한 자존감 내지는 행복감을 얻는 것과는 멀다. 생각하는 주체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자기 생각이 옳다는 관념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와 배치되는 것들을 철저히 자신과 구별 짓거나 배격한다. 그럴 때 타인과 조화를 이루거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진다.

또 주체를 상실할 경우는 외부 존재에 종속된다. 예컨대 절대신이 하라는 대로 주어인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그야말로 ‘착한 종’이 되고, 외계 대상에 탐닉하여 감각적 욕망에 빠져 살면 그러한 욕망에 종속된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할 경우는 마음의 부조화로 이도저도 아닌 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면 갈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은 어디에 해당할까. 주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자기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진 셈이므로 첫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체성의 문제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자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때 불교가 과연 안심입명처가 될 수 있을까 돌아본다면 어떠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자귀의법귀의(自歸依法歸依), 즉 자신에게 의존하고 진리에 의존하는 일이 그 하나가 아닐까 싶다.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생각에도 매이지 않고자 한다. 그렇다고 생각 없음을 따위에도 매이지 않고자 한다. 다만 생각을 창조적으로 자유자재로 드러내 나가는 향상일로(向上一路)를 걸을 뿐이다.

김봉래(불교방송 선임기자)



종무원 모집 광고

불교총지중에서 종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02-552-1080~3 http://www.chongji.or.kr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모집부문 : 사무직 종무원
- 총무부 0명
- 재무부 0명
- 재단사무국 0명
- 신문기자(총지중보) 0명

자격요건 :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우대사항 : 1종 보통 운전자, 숙식제공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조건 및 환경

-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4대보험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연봉 : 1888만원 ~ 2000만원
- 인근전철 :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접수문의

- 불교총지중 통리원 총무부
- 이메일 : chongmu@chongji.or.kr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15

반야를 구족한 관자재보살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음 신앙의 성격은 관자재보살의 대자비와 위신력의 구제력에 의지해서 현세이익을 얻기 위한 구복적인 신앙이 주류이지만 이러한 현세이익은 구경에는 반야를 증득하여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나는 보살로서 일체 유정들을 구도하려는 것은 모두로 하여금 대보리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관자재보살은 일체 중생들에게 고통을 여의고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여의고 해탈하게 하여 구경에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케 한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염마천자가 관자재보살의 덕을 찬탄하는 계승에서, 최상의 지혜는 산과 같고 보배를 베푸시어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최상의 대길상으로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 장엄하시고 라고 한 내용에서 관자재보살은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구제자일뿐 만 아니라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보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계속하여 계승에서 말하기를, 명주는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서

일체의 번뇌등 여러 가지를 모두 해탈케 하고 수없이 많은 삼마지에 들어서 일체의 악도 중에 여러 가지 경계를 열어 보이고 모두 해탈을 얻고 보리도를 성취케 하시옵니다.

라고 하여 관자재보살은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뇌로부터 해탈하고 구경에는 일체중생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보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제계장보살이여, 일체 여래의 반야바라밀다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육자대명왕을 말씀하셨다.

일체 여래는 반야로부터 출생하였으며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하였다는 의미는 반야바라밀다는 육자대명다라니와 다름이 없고 관자재보살 그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이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하여 성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자재보살의 성격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역을 건지느니라.**

라고 하여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여 오온이 공한 것을 조건하고 모든 고역에서 벗어나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한 반야교설의 대표적인 보살이라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지혜제일인 사리불에게 반야의 진리를 설함으로서 관자재보살은 수준 높은 반야의 증득자이며 동시에 실천자임을 이해할 수 있다.

관자재보살의 중생 구제력은 바로 이 반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생들이 고난과 역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관자재보살의 중생구제의 위신력에 힘입은 것이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의 해결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관자재보살은 대비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반야를 구족한 보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생들은 관자재보살을 통해서 반야지혜를 체득하여 중생이 관자재보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관자재보살의 육자대명다라니를 얻는 인연을 내세워 관자재보살이 중생들을 고난과 역난에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반야바라밀로 인도하는 보살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이에 둔 나의 경쟁자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현대 심리학의 큰 획을 그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6)의 수많은 이론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파급효과가 컸고 사람들에게 영감도 많이 주었던 이론,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내 아이들은 3-6세 사이의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고 마침내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 아들로 태어났으나 훗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을 할 것이라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들은 왕은 양치기에게 명하여 아이를 죽이도록 하였으나 양치기는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 나무에 다리를 묶어 매달아 놓는다. 그때 지나가던 다른 양치기가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에게 데려가 왕의 양자가 된다. 발견되었을 당시 묶여있던 발이 부어있어 그 이름을 오이디푸스(부은 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오이디푸스는 장성하였으나 자신이 폴리보스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델포이의 신전을 찾아가지만 정작 친자확인인 알려주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한다는 예언을 듣는다. 충격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예언에 나온 패륜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두고 코린토스를 떠나 먼 곳으로 간다.

테베를 여행 중이던 오이디푸스는 하필 자신의 친아버지와 길거리에서 통행에 대한 분쟁이 붙어 그를 죽여 버리고 만다. 이후 오이디푸스는 지나가는 이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한 자는 잡아먹었다는 스팅크스에 대한 이야기와 왕비 이오카스테가 스팅크스를 없애주는 이에게 왕위를 주고 자신은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팅크스를 찾아가다. 그리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자 스팅크스는 수치심에 스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프랑수와 자비에 파브르 작품)

스로 절벽에 뛰어내려 죽고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영웅이 되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쌍둥이 형제와 딸 둘까지 낳았다.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모르는 사이에 예언은 실현되었다. 자신의 친부부 알고 있었던 코린토스의 폴리보스가 자연사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홀로 안심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테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신전의 신탁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 전왕의 살해범을 잡지 못하면 역병도 멈출 수 없다는 예언을 듣는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전왕의 살해범을 잡으면 그의 눈을 멀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위대한 예언가를 불러 살해범을 찾으려 한다. 위대한 예언가는 오이디푸스가 살해범이고 이오카스테가 그의 친어머니임을 알려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오카스테는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자신의 눈을 찔러 실명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적 갈등이 이 이야기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남근기(4-6세)에 분명하게 드러나며, 잠복기(6-12세)가 되면 다시 억압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보다 몸집도 크고 절대적인 존재인 아버지에게 열등감과 좌절감만 느낄 뿐이다. 위협을 느낀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독점욕을 양보하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수용함으로써 타협한다.

이 타협으로 아이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극복되고 부모의 인정을 받는 사회구성원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법상 정사 연명의료 8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IV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동법에서 “말기환자에 해당되는 질환에는 (가)암, (나)후천성면역결핍증, (다)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라)만성간경화, (마)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질환 등을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2017년 8월부터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말기상태에 있는 환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하는 권역별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독립 병동을 운영하여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진행되는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의 호스피스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말기환자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

이 없을 때에는 각 목의 순서대로(배우자, 직계비속, 지계존속, 형제자매) 신청할 수 있다. 말기환자 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 신청한 경우는 대리권의 지정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말기환자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며, 지정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철회할 수 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 서비스는 얼마 남지 않은 말기환자들의 통증 및 신체 증상 완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상담, 임종준비교육 등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주고 환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길 기대해 본다.

그때 그 시절

<p>종조별도절 1주기 추선불사 봉행 총기 10년 9월 8일</p> <p>총지사 서원당에서 종조 1주기 추선불사(追善佛事)를 봉행했다. 기타 지방에서는 사원단위로 봉행.</p>	<p>종령 및 통리원장 취임식 거행 총기 15년 9월 13일</p> <p>총지사 대서원당에서 제2세 종령 녹정 대종사의 종령 이임과 제3세 종령 환당 종사의 취임식 거행. 신임 안중호(孝岡) 통리원장의 취임식도 겸함.</p>	<p>▲ 관성사 옛모습</p>	<p>사원명: 관성사 (觀星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사원명: 서대문선교부 (西大門宣敎部) ● 개설일자: 총기11년 9월 13일 ● 관성사 개명일자: 총기9년 8월 13일
<p>밀인사 신축부지 매입 총기 13년 9월 11일</p> <p>현 밀인사가 협소하여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72-6번지를 신축예정지로 매입.</p>	<p>종립학원 설립인가 총기 17년 9월 14일</p> <p>동래구청장으로부터 학교법인 대동학원(大同學園) 설립인가를 얻음(관리 25420-1165)</p>		<p>사진제공=재단사무국</p>

범자진언

Ka字

범자 쓰는 순서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trana-karaya

프라-나 가라야 (범음)
다라나 가라야 (한자음)

- 뜻: 구원해 주시는 분에게
- 다라나- 보호, 구원 / 가라- 행위자(분) / 야- ~에게



사/원/탐/방

정진 수행으로 화합하는, 자석사



▲ 사진 = ① 자석사 옛모습 ② 자석사 ③ 훈향하는 주교 도우 정사

깨달음과 자연의 도량, 자석사(慈釋寺)



▲ 자석사 약도

현대적인 도시 중심에 자리한 자연의 자석사

대한민국에서 바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바로 부산이다. 무더운 여름,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 광서로에 바로 자석사가 있다.

자석사는 사랑할 자(慈), 풀 석(釋)의 한자를 사용한다. 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게중에는 깨달다는 의미도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부처 앞에 예불(禮佛)하는 일'이라는 의미로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의 유명한 절 대부분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산속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총지종 대부분의 사원은 도시 가운데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다. 현대적이며 도시 중심적인 사회에 알맞은 구조이다. 반면에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중이 생각하는 절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석사는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지형적으로는 산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경사가 꽤나 가파르다. 그래서 자석사는 어느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쉬어 보면 어느 총지종의 사원과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든다.

부산 광안리

자석사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금련산에서

내린 질 좋은 사질에 완만한 반월형으로 휘어진 백사장과 함께, 지속적인 수질 정화를 실시하여, 인근의 수영강에 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욕뿐만 아니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카페 등과 시내 중심가 못지않은 유명 패션상가들이 즐비하며,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피서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해안도로는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기간 중 주말 야간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보행자 중심의 테마 거리가 조성되어 다양한 조형물과 벤치, 녹지대가 꾸며져 있다. 테마 거리는 남만의 거리, 해맞이 거리, 젊음의 거리, 축제광장 등 구간별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광안리 해



▲ 사진 = ④ 자석사 헌공불사 ⑤ 자석사 만다라 봉안불사 ⑥ 자석사 교도들

진언 염송에 대한 확신으로 정진하는 교도들

수욕장에서는 광안리 어방 축제와 부산 세계 불꽃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실천하는 것은 늘 어렵다

도우 정사는 “올해 자석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들의 신심이 깊은 게 삶에 닿게 느껴지니 기쁩니다. 다들 정진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에 감명스럽습니다. 계행을 아주 잘 지키세요. 그리고 자석사는 무엇보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성취가 높은 도량입니다. 보살님들의 자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다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자석사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드러내었다. 이어서 “사원이 참 예쁘고 넓습니다. 여름이라 좀 아쉽네요. 봄에 정원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서원당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 정말 시원합니다. 산 아래 위치하여 좋은 점이 많습니다.”라며 사원의 작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사원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우 정사는 “참 어렵습니다. 뭐든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실천하는 것은 매년 어렵습니다. 다만 작은 목표는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자석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이 고되고 힘들 때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의 휴식을 얻는 도량으로 만들고 싶달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로의 소망을 드러냈다. 자석사가 휴식을 얻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자석사 자부심은 “정진”

자석사 신정회 회장인 이지은 보살과의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지은 보살은 입교한지 40년이 넘었고, 회장직을 맡은 지는 17년이 넘은 베테랑 회장이다.

“어느 사원이든 그렇겠지만, 자석사 보살님들은 정말로 신심이 깊으세요. 대부분의 보살님들이 오래 다니신 베테랑이십니다. 자석사 보살님들의 자부심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거요. 부

처님 법을 느끼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늘 월초기간 같이 불공을 드립니다. 저 지금 너무 팔팔출출 같았나요?”

자석사 자랑을 부탁하는 기자의 물음에 신나게 대답하던 이지은 회장은 대답 말미에 수줍게 웃었다. “그렇다면 월초기간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하며 기자가 짓웃게 묻자 지치지 않고 “월초기간엔 새해 불공기간 때처럼 지냅니다.”하고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신정회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다 같이 휴가라도 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지은 회장은 “놀러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단합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는 수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다들 불공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오죽하면 놀러가는 것보다 불공하는 게 더 재밌다고 하신다니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십 년을 다했는데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하며 반문했다. 이지은 회장의 눈에서는 한 치의 거

짓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지은 회장은 이어서 “전수님께서 온갖 보살님들을 다 챙기세요. 새벽 일찍 오는 저부터, 퇴근하고 오시는 다른 보살님들까지요. 그만큼 정진하시는 것이죠. 전수님이 젊으시잖아요. 센스가 있으세요. 늘 실천하시려고 애쓰시는 게 보입니다.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라며 지연 전수의 칭찬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이지은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총지종에 입교하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법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더 느끼려고 더 노력합니다. 저의 서원이 이루어지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든 열심히 하고, 실천한다면 다들 해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살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고령화되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할 숙제이죠. 뭐든 쉽지만 하면 무슨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보살님들이 제도되길 바라고,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드러내었다.

주교 : 도우 정사
주소 : 부산시 수영구 광서로 54번길 47(광안동)
전화 : 051-752-1892

지상 설법

자신의 업을 인정하고 참회를 통해 소멸하도록



자식사 지현 전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괴로움이 참 많 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건 바로 각자의 업으로 인한 것이지요.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업장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업장(業障)이라는 단어에서 장은 장애(障礙)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업으로 인한 장애라는 뜻입니다. 왜 누군가의 업장은 두텁고 누군가의 업장은 얇은 것일까요? 인과법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씨를 뿌려놓은 만큼 수확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 전 생부터 현생까지 각자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뿌려 둔 삼업(三業)의 씨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 잘 된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선업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이란 것을 인정하기 쉽

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그 무엇보다 괴롭습니다. 종종 가족을 두고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원망합니다. 타인이면 아무 것도 아닌 일도 가족이라 더 괴롭기도 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더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주 늦게 결혼에 성공한 남자가 있습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법도 한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각방을 쓰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자 남자는 절에 있는 큰 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스님, 밤만 되면 아내가 너무 무섭 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롭습니다.”하고 말하자 스님께서 “과거 인연에 원결이 있는 듯합니다. 부인이 잠이 들면 부인에게 찾아가 잘못을 비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

고 세 번 말을 하고 절을 하시며 잘못을 참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밤마다 잠든 아내 곁으로 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진심이 없는 말투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차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든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나자 아내가 잠꼬대처럼 조용히 울조리는 것이었습니다. “후~ 잘못했다니 어쩔 수 없지. 용서해 줘야지……”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자 밤이 되어도 아내가 무척지 않았습니다. 집착전대 과거 원한이 풀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그 이후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

다고 합니다.

보통 현생의 가까운 인연은 과거에 원수일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과거에서 못다 풀 원이 있으면 현생에서 가까운 관계로 지내며 풀라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가족끼리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다 나의 업이 거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번 생애에 갇지 못 하면 다음 생애에 또 만나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진 과거의 빛과 업을 이생에서 소멸시키지 않으면 다음 생의 괴로움은 이미 예약해 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에도 사원을 찾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업장을 해소하여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바람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는 것이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 업을 소멸시키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업송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하데 방법이 틀렸다면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에,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규칙이나 신호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해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방법이야 어떻든 도착만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힘들습니다.

우리가 불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앉아서 기계적으로 업송

을 외고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본인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업송 해야 합니다

참회의 첫 단계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힘든 것은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어 온 나의 업이란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뒤우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일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야말로 업장소멸의 지름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송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업송정진으로 업장소멸 하시고 서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철 교도

복은 자신이 아는 만큼, 하는 만큼 받는 것

제 남편은 장남이고, 결혼 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꽤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주시면서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장 큰 목돈이 생긴 것이 기쁘기도 하고, 어딘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자 저의 마음과는 달리 재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번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저는 어머니 재산의 활용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재산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뜻대로 재산을 모두 땅을 사는 곳에 소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과 더불어 몸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아 물려준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터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종잡지 못한 괴로움에 견디지 못하여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몸의 건강은 회복하였지만, 솔직히 재산을 잃었다는 괴로움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공을 하는 동안은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가, 문득 재산에 대해 떠오르면 또 다시 부아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꼬박 2년을 절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꿈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너무도 반갑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께서 주신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습

니다.”하며 아이처럼 울자 시어머니께서 너무도 인자한 미소로 저를 따라서 이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괜찮다. 그 재산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왔다. 그 재산은 내가 다시 가져온 것이니 이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자 너무도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그 재산을 어차피 시어머니 것이었고, 그것을 다시 당신께서 들고 가셨다고하니 더 이상 아까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아주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산이란 것은 모를 지기 자신이 벌어야 자신의 재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재산이 제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제가 그 오랜 시간을 그토록 오래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 큰 아이의 직장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입니다. 제 아이는 통신 관련 일을 전공하였는데, 제 남편은 아이를 배를 태우는 일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 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를 타는 일은 생각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 나니 일자리를 찾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막연하게 아이의 취직자리를 염원하며 불공을 드렸습니다. 업송을 하면서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 다. 두루뭉술하게 업송을 드리니 제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니 다.

저는 그런 막연함을 해쳐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 월급을 30만 원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지자 불공을 하는 저의 마음도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 습니다.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불공을 드리던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수도꼭지에서 수도물이 흐르는 곳 아래 바가지가 놓았는데, 그 바가지가 차고 넘치도록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도 않고 기분이 좋아 하염없이 바가지를 바라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 아이는 공무원이 되었고, 첫 월급으로 3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대로 회사하였습니다. 대체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하고 꿈꿈이 생각해보다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은 자신이 아는 만큼, 하는 만큼 받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자신의 복을 알고 받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그 아래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있다면 간장종지만큼의 물만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쉽게 단정 짓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 다. 부처님께 의지를 하고, 스승님께 의지를 하며, 또 스스로에게 의지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편합니다. 열심히 정진한다면 자신이 정진한 만큼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충 정진한다면 대충 얻을 것이고, 공들여 정진한다면 공들인 것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교도분들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리라이팅=박설라



우금란 교도

그게 다 전생의 빛이니까 '참회해라'

총지중에 입교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하니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다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끄럽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선적도 있고 오다가 안 오다가 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종교나 절에도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절이나 종교에 마음을 붙이려고 할 때면 팬스레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심경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총지종으로 돌아왔지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평온했던 순간은 늘 총지중에 있었을 때뿐인 것 같습니다.

입교 동기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4살 즈음에 군인아파트로 입주할 했는데 이웃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같이 사고 등치에 말쑥꾸러기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경찰들도 아

파트 단지에 자주 들락거리고 엄마들이 학교며 과출소며 불러가는 일도 참 잦았습니다. 늘 속이 상해서 속이 문드러져가는 이웃을 보고 있노라니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뿐인 아들이 어긋난 행동을 보고, 닳게 핏갈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걱정을 하며 온천장에 불일을 보러 가는 길에 동네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절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49일 불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참 좋다더라. 조상 불공도 해주고, 별의 별 것을 다해주는 데 그게 다 도움이 된다더라.”

그렇게 총지종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란 오래 주위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자라기 마련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렸습

니다. 진심이 닿았는지 아들은 정말 교과서처럼 자랐습니다. 조금의 일탈도 없이, 아주 반듯하고 똑바르게 성장했습니다.

바르게 커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부처님께 참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불공을 드렸습니다. 컨디션 좋지 않아서인지 첫 시험에서는 훌륭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재수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할 대신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아들을 위해 더 절절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고, 삼시세끼를 잘 챙겨주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1년을 지친 기색 없이 잘 견뎌주었습니다. 마침내 서울대학교 공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학교 연구실에서 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를 아내로 맞아,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바라던 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때, 건강 때문에 많이 캄캄해진 적이 있습니다. 간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건강 화까지 오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은덕이라는 게 있다면 건강이 되찾아질 것이고, 그런 게 없다면 될 대로 되라는 불쌍스러운 마음으로 염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간의 건강이 돌아왔고, 그 일로 인해 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딜 가나 나이에 비해 무척 건강하다는 말을 꼭 들을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 이것 역시 부처님 덕입니다.

어느 날 편도선이 몹시 안 좋을 때 절에 가니 나이 든 보살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

차마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다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늘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전생의 빛이니까, 참회해라.”

나이 든 보살님은 이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빛을 갠다는 심정으로 참회를 하고 나니 심하게 부었던 편도선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태껏 목에 탈이 난 적이 없는 걸 보니 정말이지 참회의 힘이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말하길, 우리 가정은 아주 모범적이고 화목하고 행복한 집이라고 들 합니다.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불공으로 서원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가족 그리고 모범적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종파도 겪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돌아보면 솔한 위기를 부처님 덕으로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님 가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염주를 돌릴 때마다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부처님, 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당을 나설 때는 꼭 돌아서서 한번 더 서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부처님의 은덕을 많은 보살님들도 입으시길 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리라이팅=황보정미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20)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철학박사)

연기(緣起)의 이해와 수행

일체 존재는 사대(四大) · 오온(五蘊) · 십이처(十二處)로 이루어져 있다

석존은 일체의 존재를 사대(四大)와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로 설명하고 있다. 사대란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가 화합하면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바로 이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어 흠어지면 명이 다하고, 사대가 모여 살아 있는 육신을 이룬다는 것이다. 사대가 일체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대의 지(地)는 딱딱한 성질의 존재를 나타내며, 수(水)는 부드러운 액체의 존재를 말한다. 화(火)는 불의 기운으로서 더운 성질을 나타내고, 풍(風)은 바람으로서 기(氣)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대가 화합한 것이 색(色)이다. 여기서 색(rūpa)은 물질적 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색(色)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식(識) 또는 심(心)이라 불리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요소들이다. 앞의 색(色)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의 요소를 일러서 오온(五蘊)이라 부른다. 온(蘊)은 '근간적인 부분'이란 뜻으로 인간존재의 근저를 말하는 것이다.

오온 가운데 색(色)은 물질적 형태를 말하며, 수(受)는 색을 바탕으로 느끼는 요소를 말한다. 상(想)은 느낌을 통해 생각하는 요소이고, 행(行)은 생각 이후에 일어나는 작용의 요소이며, 식(識)은 그로 인하여 식별하는 요소이다.

즉정신적인 기능과 마음의 작용을 표현한 말이다. 석존은 일체의 존재를 이와 같이 오온(五蘊)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또 다시 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십이처(十二處)라 부른다. 십이처라는 말은 '열 두 가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 가 있다'는 뜻이다. 처(處 -āyatana)는 '들어 가 있다', '포함된다' '포섭된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십이처에 포함된다. 십이처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십이처가 바로 육근(六根)과 육경(六境)이다.

육근(六根)은 여섯 개의 뿌리라는 뜻으로, 일체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즉 안(眼) · 이(耳) · 비(鼻) · 설(舌) · 신(身) · 의(意)가 육근이다. 눈 · 귀 · 코 · 혀 · 몸 · 의지라는 여섯 개의 인식기관을 말한다. 육근은 인식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에 대하여 육경(六境)은 여섯 개의 인식대상들이다. 즉 색 · 성 · 향 · 미 · 촉 · 법(色聲香味觸法)이다. 색과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법이라는 여섯 개의 바깥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안(眼) · 이(耳) · 비(鼻) · 설(舌) · 신(身) · 의(意)의 대상이 바로 색 · 성 · 향 · 미 · 촉 · 법(色聲香味觸法)이다.

육근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밀교의 십선업도(十善業道)와 아자(阿字) 수행이 있다

육근을 통해 짓게 되는 우리의 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눈[眼]은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는 각자 자기가 본 것이 정확하다고 고집을 부린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15일이 분명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토요일이라고 우긴다. 자기는 분명히 달력을 봤다고 큰소리친다. 그런데 그 상대가 본 것은 9월의 달력이었다. 착각에 의한 고집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리들의 눈[眼]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봤다고 고집을 부린다.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색안경을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기 일쑤다.

귀[耳]는 또 어떠한가? 잘못 들어 놓고서는 말한 사람을 나무란다. 딴 소리한다고 핀잔을 준다. 들은 적이 없다고 잡아뭇는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코[鼻]는 어떠한가. 냄새를 정확하게 맡을 수는 없다. 사람의 후각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자기가 맡은 냄새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 유독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 비근(鼻根)에 의한 일종의 병이다.

혀[舌]는 또 어떠한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것이 중생이다.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육근(六根) 가운데 하나다. 맛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짜네, 맵네, 싱겁네 등등 말도 많다. 혀가 맛을 보고 입이 잔소리를 하는 형국이다. 혀는 맛을 보기도 하지만 소리를 내는 구입의 뿌리이기도 하다. 혀끝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몸[身]은 살생과 투도, 사움을 짓는 업의 뿌리다. 우리는 몸으로 많은 악업을 짓고 있다.

뜻[意]으로 짓는 것은 어떠한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옳지 않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석존은 육근을 잘 다스릴 것을 역설한다. 『육바라밀경』에서 설하기를, “육근을 굳건히 단속하여 방일하지 아니하여 눈이 비록 모든 형태를 보더라도 모양을 취하지 않고, 매우 깊고 고요한 해탈에 편안하게 머물러야 한다. 귀와 코, 혀와 몸과 뜻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눈으로 보더라도 모양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선입견이나 착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또한 매우 깊고 고요한 해탈에 편안하게 머물러야 한다 함은 마음에 동요나 분노, 증오로써 설부른 판단이나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육근으로 잘못된 업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근을 잘 다스려야 한다.

밀교에서는 육근을 잘 다스리기 위한 수행으로 십선업도(十善業道)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계율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십선을 지키기 위한 수행으로 삼밀수행, 그 가운데 아자(阿字)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자(阿字)를 관하고 외음으로써 나쁜 습관을 멀리 여의고 선한 업을 짓게 된다는 것이다. 계를 지키기 위하여 아자 수행의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다. 즉 육근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아자 수행을 설하고 있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생기차제 초가행삼마지 중 유가차제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선임연구원)

석가모니붓다는 입멸 후 붓다의 존재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열반 후 불신(佛身)은 모양으로 그리거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대답을 회피하였다. 붓다의 입멸 후 불신의 존재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부파 불교시대에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부파들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응신(應身)의 연구로 대상을 확대시켰다. 인도 후기밀교의 본수행은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로 이루어져 있다. 간략히 생기차제는 응신을 수습하는 수행이고, 구경차제는 법신을 수습하는 수행이다. 보살지와 비교하면 법신의 수습은 법

운지(法雲地)에서 이루어지고,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의 단계에서 수용신과 화신을 성취한다고 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화엄학에서는 등각과 묘각에 대해 삼신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볼 수 없지만, 인도 후기밀교에서는 보살지와 삼신과의 관계를 수행체계로 입각해 밝히고 있다. 이처럼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는 불교사에서 수행체계의 연구가 확대되면서 이루어진 산물이다.

생기차제는 법신으로부터 수용신, 화신을 발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기차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데, 첫째는 법운지를 완성한 성취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신으로부터 화신을 발현하는 과정을 수습하는 것이다. 때문에 생기차제는 등각과 묘각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여기에는 인도불교와 동아시아의 논의거리가 생긴다. 그러나 『유가사지론』과 같은 논서에는 법운지를 성취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정각자라 부르지 않는다. 법운지는 관정지(灌頂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정각자의 문을 열은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 공성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것은 부동지(不動地)이다. 법운지

에 도달하면 체용(體用), 즉 본성과 현상에 대한 중도의 도리에 요달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해탈만으로 중생을 구제하지는 못한다.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품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제자의 사후 그의 사후여행에 동참해 정도로 이끌거나 인간계의 수행처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법화경』에서 붓다가 제자들에게 성불할 것을 기약하는 수기를 내릴 제제자들은 미래의 불호(佛號)와 정도를 건립할 것을 붓다로부터 예언 받는다. 정도를 건립하려면 타수용신을 나누고, 타수용도를 건립할 수 있어야 한다. 생기차제의 수행은 이처럼 법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목표를 현상계에서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대일경』에서는 비로자나여래가 보관을 쓰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신변(神變)을 나누고 여러 세계를 전전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것이 바로 진언문(眞言門)이 현교와 구분되는 본질이자 목표이다.

생기차제는 법신으로부터 시작해 수용신, 화신의 순서로 관상(觀想)과 염송(念誦), 유가(瑜伽)와 진언(眞言)의 염송을 실천한다. 생기차제를 수습하는 수행자는 먼저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신을 성취하는 것은 무어열반에 드는 것이지만 범부인 수행자의 입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사자의 서』에서 언급했듯이 죽음의 과정은 4대와 5온 · 12처가 분해되어 법신의 본체에 회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자아(自我)가 해체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생전에 극복해야 한다.

밀교의 많은 법구와 본존들은 무서운 형태를 보이거나, 숨어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두려운 도상을 보인다. 탕가와 밀교의식에 등장하는 해골문양은 자아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고 자아에 대한 공성(空性), 삼보에 대한 귀의



와 헌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수행은 동정(動靜)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참선에 들 때 고요한 것 같지만 자아의 본질은 치열한 번뇌와 욕망의 산물이며, 현상을 피해 마음 깊이 씨앗처럼 잠재해있다. 대승불교의 유가행은 아뢰야식에 감추어진 종자와 말나식에 취착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인도불교는 유가행에서 정의된 번뇌와 수행이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편을 수백년의 시간을 통해 시험하였으며, 때문에 밀교는 인류의 종교 가운데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최고의 비밀법문이라는 확신을 언제나 갖게 된다.

삼진종합자재



- V벨트 ● 베어링 ● 바퀴 ● 볼트
- 공구 ● 각종호스 ● 잡자재



Tel. 055-355-0945 / Fax. 055-355-0940
010-2067-2266(밀행사교도 허미자 자녀)

동해중 소식

동해중 외부 이중 창호공사 및 방수 공사 실시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에서는 내외 이중 창호공사를 전면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5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인해 비가 오면 일부 건축물에 누수 현상이 있어 교육청의 특별 예산을 지원받아 전면 방수공사도 함께 시행 중에 있다.

본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4억 1천 2백 6십 2만 7천원으로 동해중학교의 본관 건물 1층에서 3층 교실 창문을 모두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공사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는 모든 교실의 소음 차단은 물론 방음효과도 뛰어나서 냉·난방의 효율화로 학생들의 학습의 질적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공사의 완료로 인해 어둡고 쾌적하지 못한 교실환경이 개선되었음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 사업이다.

1층에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받아 겨울 방학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본 공사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일념 하에 모두가 묵묵히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앞으로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천장 텍스교체 사업, LED조명 교체 사업, 학교내 모든 전산장비 및 내선 교체 사업, 방송실 현대화 사업, 내진설계 사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다.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19.5% 인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은 7월 폭염에 따른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줄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에서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조정한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

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성연 기자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환경 위기 극복 가능

우리나라 지상관측 이래 '최악 폭염', 27일 이상 열대야 지속 음식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자제 등 CO2 줄이는데 효과적 "내가 바뀌면 이웃이 변화고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 가장 중요"

지독히도 더운 여름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서울서 선선한 바람은 27일 여만인 8월 16일 말복이 되어서야 처음 맞았다. 8월 1일 뉴스에는 서울 39.6℃이고, 강원도 홍천 40.6℃로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기록됐다고 전했다. 1994년 가장 무더웠던 날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초여름대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라시아 전역에 '열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불볕더위가 북반구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10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2.5℃였지만, 100년 지난 2017년의 경우 24.5℃로 2℃ 상승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평균기온은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평균 1.2℃가 상승했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에 불과 0.3℃만 남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에서

50년간 관측된 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WMO(세계기상기구)는 "세계 120곳서 관측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분석 결과 2015년 평균 농도가 400.0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팽창, 바닷물의 온도상승, 기후대의 사용, 극지방의 빙하가 줄어들고, 해류와 지형, 그리고 지구의 기류의 변화로 인해 지형적으로 폭염과 폭우와 폭설 등 격렬한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되 사용해도 냉방온도를 26℃이상으로 사용해야한다. 냉방온도를 1℃씩 조절할 경우 연간 11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1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CO2를 줄인다면 지금 우리 지구에게 닥친 온난화의 시련을 막을 수 있다.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이용해 분리수거만 잘해도 연간 188kg의 CO2가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소속된 신문사와

불교환경연대가 함께 손잡고 폭염 속에서도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 주제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이다. 캠페인은 일회용기나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해 숲 등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래서 각 가정서 쓰지 않고 찬장에 잠재우고 있는 텀블러를 함께 나눠 사용하고, 이에 맞춰 환경기금을 후원해 다른 환경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업로드 했다. 서울 최고 기온 40도를 갱신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캠페인에 대해 묻는 행인들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친환경 상품 사용, 환경마크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구매 등을 통해 CO2 감소 운동에 동참 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더워라도 샤워 시간을 1분정도 줄이

고, 세탁물 빨래를 한데 모아서 하는 것도 환경보호 실천 방법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음식물 쓰레기이다. 이 것도 좀 줄여보자. 각 가정서 쓰레기만 조금 덜 배출해도 연간 15조원과 CO2를 줄일 수 있다. 나 하나 분주스럽게 바쁘다고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지 마라. 아주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내가 바뀌면 주변 이웃도 그리고 세상이 바뀐다는 긍정적 생각과 신념을 가져야 우리 앞에 도래된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일상에서 그동안 무시코 흘려보낸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친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그래야 올 여름 우리를 힘들게 했던 폭염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업으로 뿌린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거두고 노력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폭염에 추석 물가 벌써 들썩... 과일 등 제수품 공급 차질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 내놓을 상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민이나 치솟는 물가에 걱정부터 앞서는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2천334.8ha에 달한다. 추석 제사상에 오르는 사과, 포도 등 주요 과수농가의 피해가 1천105.8ha로 가장 크다. 농가는 한창 과실이 커질 시기에 열과, 낙과 등의 피해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지 수급량이 줄면서 과일 가격은 벌써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윤수지 기자

수박은 8kg 가격이 2만7천437원으로 평년 대비 68.8%, 전월 대비 79.5%가 올랐다. 채소류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수확 철에 접어든 감자의 경우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예년 수확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가축이 급증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행안부에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가축 폐사 피해는 전국에서 544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밀집 사육 등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505만9천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폐사한 닭 631만9천마리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닭의 폐사 원인이 대부분 조류인플루엔자(AI)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폭염 피해인 셈이다. 이 같은 영향에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가던 닭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7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7668610
●우리은행:122-177171-13-104 ●예금주: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Organization,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개천사, 관성사, 동해사, etc.

Table with 4 columns: Organization,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법계월, 시법, 행원심, etc.

Table with 4 columns: Organization,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화음사, 무명씨, 흥곡사, etc.

Table with 4 columns: Organization,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법지원, 일성혜, 불멸심, etc.



절기 이야기

추분

삼일사 주교 남혜정사



추분은 일년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가을날로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한다. 곧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추분점은 황도와 적도의 교차점 안에 태양이 적도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가로지르는 점을 말한다. 곧 태양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으로 적경, 황경이 모두 180도가 되고 적위와 황위가 모두 0도가 된다. 추분과 춘분은 모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지만 기온을 비교해 보면 추분이 약 10도 정도가 높다. 이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추분에는 노인성제와 가을걷이와 같은 세시풍속이 전해져 오고 있다. 가을걷이는 말 그대로 추분 때가 되어 다 여룬 곡식을 추수한다는 뜻이다. 가을

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곡물인 벼를 비롯해 콩, 팥, 조조, 기장, 옥수수, 메밀 등 다양한 곡식을 추수한다. 물론, 추분보다 추석이 더 빠른 경우라면 조금 더 일찍 수확했겠지만, 예로부터 추분을 전후한 시점이 본격적인 추수 기간이었다고 한다.

노인성제는 인간의 장수를 담당하는 별인 노인성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다. 노인성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여겨 고려시대에는 잡사, 조선시대에는 소사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을 정도다. 노인성은 용골자리에 있는 카노푸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며 남반구에서 가장 밝다. 남반구에서 주로 보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도 보기 어렵지만 남쪽 해안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추분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해 중 먹을 것이 가장 많은 시기인 '사후에 안락의 세계에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수행의 기간'이라고 말한다. 특히 일본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선조에게 감사하며 잘 받들어 공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으로 하간회라고 불리는 추분절은 인도나 한국, 중국에도 없는 일본의 독자적인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되었다. 이밖에도 추분에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토리 이용해 묵을 해 먹거나 가을 달래를 찾아 달래 요리를 해 먹기도 하는 등 소박하지만 알찬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

일본에서는 추분을 추분절, 하간회 또는 피안절이라고 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피안이란 저 언덕, 곧 극락세계를 가리킨다. 추분은 길 잃은 중생의 이정표가 된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해만 따라서 가면 극락세계 동쪽 정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추분을 피안절이라 하여 조상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날로서 아주 중요시한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추분날 산소나 조상이 모셔진 절을 방문해 조상에게 공양을 올린다. 추분날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일본의 절들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일본불교에서는 추분을 중심으로 7일을 '사후에 안락의 세계에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수행의 기간'이라고 말한다. 특히 일본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선조에게 감사하며 잘 받들어 공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으로 하간회라고 불리는 추분절은 인도나 한국, 중국에도 없는 일본의 독자적인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2002년 MBC에서 방영했던 <네 멋대로 해라>를 인생 드라마로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최고의 드라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과 무관하게 최초의 마니아드라마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다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특정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멋대로 해라>의 주인공 '고복수(양동근)'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캐릭터였습니다. 우선 그는 잘생기지 않았고, 이견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로맨스가 주축인 드라마라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엔 더욱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사실 외모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안 좋더라도 얼굴은 잘 생겨야 했습니다. 이게 드라마 주인공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런 불문율을 깨뜨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여자주인공 전경(이나영)은 경찰서에 고복수를 찾으러 가서 경찰관한테 인상착의를 설명할 때 "좀 웃기게 생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웃기게 생겼다는 말은 평균에서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의도한 고복수의 외모는 보통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복수는 '좀 웃기게 생긴 얼굴'로 두 여자의 순애보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웃기게 생긴 얼굴로도 모자라 달동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전과 2범의 소매치기인 고복수를 두고 엄청 나게 예쁘고 엄청나게 날씬한 여자 둘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설정은 드라마 공식에 익숙한 시청자에게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라마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처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어렵습니다. 물론 고복수가 나중에는 소매치기를 그만두고 스텐트맨이 되지만 어쨌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고 일반인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 그런데 드라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주었습니다. 소매치기 전과 2범의 범죄자인데 그는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소매치기지만 부모님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가출하면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퇴근한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고, 여전히 가난한 엄마에게 자신이 번 돈을 주는 원망이나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없는 따뜻함과 연민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중거를 조작해서 고복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박형사를 대하는 태도도 고복수가 거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생활한 그는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복수를 꿈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감 후 고복수가 하는 일이라곤 박형사를 앞에 두고 그 누군가와 박형사가 한여름에도 뽕뽕을 잡기 위해 팔짱잡음을 끼고 다닌다고 흥을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고복수의 행동을 봐서는 전혀 미움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고복수에게는 사람에 대한 미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고복수에게 이런 저런 상처를 내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상처가 고복수에게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복수는 실로 거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멋대로 해라>의 매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존 드라마와 달리 외모가 아닌 따뜻한 마음이 가진 매력을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와 달리 마음씨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상대 또한 착한 마음씨를 가졌을 때만 그 아름다움을 알아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는 아름다운 마음 보다는 잘생긴 외모에 치중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마음씨가 아름다운 주인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드라마를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이자 인생드라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솔직히 고복수와 같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복수가 언제나 우미와 따뜻함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사람으로서 갖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인욕선인 시절에 가리왕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에고에 대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복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경이 고복수에 대해서 '체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물을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⑫

梅蘭菊竹



덕광(삼보사 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蘭 따라 그리기 IV

Step-by-step drawing guide for an orchid (蘭). It includes four numbered steps (1, 2, 3, 4) showing the progression from a single stem to a full plant with leaves and flowers. A '완성' (Completion) section shows the final drawing. The drawing is done in traditional ink wash style.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제5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모집기간 2018. 07. 16 ~ 12. 15 (모집기간 중 1박2일 선택)

모집대상 (선착순) 초등학교 (4학년이상) 중·고등학생 팀으로 참가 (4-8명)

신청서 접수 및 참가문의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로 문의

02-552-1080~3 sukkim18@hanmail.net

한마을 캠프 안내 일시 | 추후공지 (겨울방학내 2박3일 예정) 장소 | 추후공지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내용 | 여행 후기 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소년범, 마침내 경찰관이 되다

10년 도전 21번 낙방, 왜 경찰이 되려했나?

'2008년 1·2차 필기 불합격, 2009년 1·2차 최종 탈락...2017년 1차(상반기) 필기 불합격, 2017년 2차(하반기) 최종 합격.' 10년 동안 같은 시험에 스물한 번 도전했다. 마침내 스물두 번째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6월 30일 경찰 공무원에 임용된 김모(36) 순경의 이야기다. 그의 합격이 더 의미 있는 건 긴 시간 곁하지 않는 도전을 했다는 점 외에 한 가지 더 있다. 그는 '소년범(少年犯)' 출신이다. 소년범 출신의 경찰 임용은 전례를 찾지 어렵다.

범의 심판을 받던 그가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기까지의 과정은 긴 고통이었다. 실적이 반복되자 2011년 5번째 도전 때부터는 가족들에게조차 시험준비를 숨겼다. 문득 불합격의 원인이 과거 범죄전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괴로움·좌절감에 허덕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직업'으로서 가장 선(善)한 일은 경찰'이라는 신념이었다.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찰 영평사에서 김 순경을 만났다. 영평사는 10대 소년범 김군의 절망을 깨뜨리는 '울림'을 준 박삼중(전국교도소재소자교화후원회 회장) 스님이 거처하는 곳이다. 김 순경은 스님께 정복입은 모

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고 했다. 그는 의명을 요청했다.

울림의 인연은 15년 전이다. 당시 전국 12개 소년원에서 선발한 17명의 모범 보호 학생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문화체험을 떠났다. '전례 없는' 한·일 교류였다. 한국 부산의 자비사와 일본 후쿠오카의 남장원이 함께 후원하면서 성사됐다. 당시 자비사 주지가 바로 삼중 스님이었다. 김 순경은 모범 보호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김 순경은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삼중 스님께서 '너 한테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신 게 가슴에 깊이 박혔었다"며 "'세상에 악취를 풍기기도 하는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셨다"고 회상했다. 김 순경은 "마음에 연꽃이 피는 듯 했었다"고 당시 울림을 기자에게 전했다. 울림은 삶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그래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직업으로서 가장 선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주위에서 다들 말렸고, 돌아오는 답은 늘이었다.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안 되는데... 너 안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순경은 26살 되던 해인 2008년 첫 도전 후 21번의 잔인한 좌절을 경험했다. 최종 면접단계에서는 14번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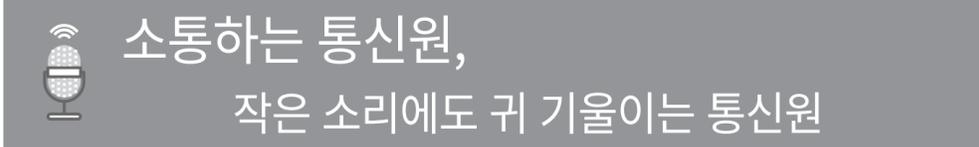
졌다.

소년원을 가게 된 사연은 이랬다. 고교 3학년 때 시인으로 등단한 뒤 2002년 모 대학 문예창작과에 수석 입학했다. 하지만 '인생의 끝(심연)을 보고 싶다'는 문학 열병을 앓았다고 한다. 방랑 아닌 방황을 이어간다. 세상에 대한 회의도 컸다. 그해 11월 술에 취해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돌로 부수려 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곧 출동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만 19세로 소년범 적용 대상이었다.

김 순경은 운명의 마지막 면접을 떠올렸다. 그는 "그동안에는 '이벤에 떨어지면 또 도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2차 시험 마지막 면접 때는 '다시 응시할지 모르겠다'고 한 걸로 기억난다"며 "다만, 면접관에게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변하겠지만, 인간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 대한 선의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은 하염 없이 울었다. 9년 10개월의 세월 자체가 큰 공부였다고 전했다.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 이끈 김인균 감독

어머니 잃은 슬픔에도 일구어 낸 성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부분 개인 혼영 400m에서 은메달, 200m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서영 선수의 감독인 김인균(경북도청) 감독이 총지종 수인사 교도이다.

김서영 선수는 '인어공주'로 불리며 수영 마지막날 대한민국 선수단에 유일한 금메달을 선물했다. 금메달을 걸고 풀 저편에서 걸어오는 김 선수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인균 감독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감독은 지난 6월 3일 고인이 되신

수인사 이정숙 보살의 아들이며, 현 종령의 조카이다.

김 감독은 아시안 게임 개최 직전 어머니 천도불공 49재를 지내고 이튿날 현지로 출국하였다. 김 감독은 현지 숙소 침대 머리맡에 태극기를 놓고 옴마니반메훈 진엄염송을 하였다고 이모인이경화 보살이 전했다.

이경화 보살은 "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며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통신원=권순복

단음사,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

단음사 신정희 인간방생비 성금 모아 전달



단음사 교도들은 8월 26일 독거노인 반찬배달에 참여하여 봉사했다. 또한 단음사 신정희는 인간방생비를 모금하여 무료급식 및 반찬배달 부식비로 수인사에 성금을 전달했다.

수인사에서는 사찰요리반을 중심으로 매월 자성일(일요일)마다 독거노인

무료급식을 시행하며, 마지막 자성일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배달을 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대구·경북교구 사원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매월 순회하고 있다.

통신원=권순복

부산 정각사, 가칭 '청년회'(구 자성학교) 결성



정각사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불교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정 '청년회'(구 자성학교)가 결성되었다. (구)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별관 1층에서 8월 12일부터 수업이 시작된 가정 청년회는 교도자녀들로 구성된 7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모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

로 퀴즈로 푸는 불교, 야외 활동, 놀이 활동, 창작 공예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자성일(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첫날 6명에서 둘째날 12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신원=김부강



묻고 답하기

Q 질문. 총지종에서는 합장 손모양이 조금 다르던데요. 합장에 관해 알려 주세요?

합장(合掌)은 불교인들이 하는 인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부처님께, 도반들 상호간, 스님께, 정사님께, 전수님께 인사할 때도 합장으로 예를 갖춥니다.

합장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 위에 합쳐진 한 생명이라는 뜻을 품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화합과 공경의 뜻이기도 합니다.

합장으로 부처님전에 나아갈 때는 부처님께 귀의(歸依)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하고 왼손은 중생인 자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합장은 바로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심과 귀의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증명해 보이는 수인(手印)이기도 하지요.

총지종에서는 금강합장을 합니다. 연화합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합장으로 양 손바닥과 손가락을 합쳐 하나가 되게 만들지만 금강(金剛)합장은 오른손가락과 왼손가락 사이사이를 교차하여 양손이 하나되게 합장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부서지지 않는 금강과 같이 굳건하게 하나임을 상징하는 수인입니다. 바로 불교

총지종의 인사법이지요. 총지종 교도는 금강합장으로 상호인사를 하며 "성도합시다" 라고 인사말을 전하게 됩니다.

총지종 수행안내서 [육자의례 해설]에 보면 '금강합장은 예배인(禮拜印)이라고도 한다. 공경하고 받들어서 부처되는 가장 수승한 결인이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결인이며 불보살과 중생들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신밀(身密)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지종 홈페이지 상위 메뉴 서원당내 수행법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법일정사

어울림 소식

1. "축하합니다" 정각사 신정희 출범
회장: 정인숙, 부회장:박정화
총무: 구본정
2.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9월 7일 정각사 영성 49재 계유생 박영순 (합창단 최영혜 교도의 모친)

총지스케치

불타는 지구

김홍균 작가

총지종보 새이름을 정해주세요

불교총지종 '총지종보'(신문)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해 주세요. 진언 생활불교 정보지를 추구하는 언론 매체로서 가장 적합한 신문 이름 하나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다라신문 / 진언라이프 / 진언생활

대상 : 불교총지종 교도 누구나
선정기간 : 총기 47년(2018) 9월 30일까지
접수 : 불교총지종 통리원(총보실) 02-552-1080 / news@chongji.or.kr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정각사 교도 이상록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아들과의 여행.

어릴 적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는 둘째 아들과 러시아 여행을 떠났다.

러시아는 여름은 습기가 없어 건조해 좋고(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낮다) 겨울은 바람이 한국보다 덜 해 오히려 덜 춥게 느껴져 여행하기 좋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하얀 눈 덮인 모스크바의 겨울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꼭 필요한 러시아 단어 몇 자를 외워보니 입에 잘 붙지 않는다. 고마워-빠칼스탕, 팡큐-스빠시바(욕 하는 것 같네), 아침인사드 부러 웃더라 화장실-푸알렛 등등...

아들과 함께 출발

출발하는 날, 일행들은 자주 만나는 허물없는 사이라 편찮았는데 아들은 서먹해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을 거쳐 PARK INN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게 되었다.

밤늦게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온다는 아들이 4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호텔 뺨에서 만나게 되었다. 친춘 남녀들이 짝 차있고 흥겹게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일찍 일어나려 했는데 주문한 요리와 술이 늦게 나오면서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 일행 남자분들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한 아들의 서먹함을 인생 선배로서 편안하게 풀어 주려고 아들을 위해 마련했던 자리였다. 나중에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이곳은 음식 주문을 하면 많이 느리게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들은 미리 시간을 예약해 놓고 음식 나올 때 바로 계산을 끝내야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동할 수 있어 일정에 맞출 수 있고 여행 스케줄에도 지장이 없다고 했다. '빨리 빨리'가 일상화 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우리보다 시차가 늦고 위도가 높아 밤 11시가 지났음에도 해가 지지 않아 밝이 환하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어둑해졌으며 3시가 되니 벌써 동이 뜨기 시작했다. "아! 이것이 말로만 들던 '백야'구나." 여름에는 이처럼 밤이 짧고 대신 겨울에는 밤이 무지 길다고 한다.

7시 조식 후 에르미타주 겨울궁전 박물관(세계 3대 박물관)을 관람했다. 안에 들어서자 황금빛 궁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눈을 땄 수 없었다. 특히 날개를 펴고 있는 황금 공작새와 많은 명화들, 5개 건물로 이어진 생동감 있는 아름다운 궁전광장 등 내가 본 파리 루브르 박물관 보다 감동이 크다. 상트페테르스는 4개의 운하로 분리된 계획에 의해 세워진 공업도시이며 러시아에 속한 유럽이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로마에 버금가는 도시로 인구 모두가 도심에 모여 있고 5명중 1명은 교육과 관련하여 종사하며 지금은 러시아

의 제2의 수도이다. 유럽을 공부한 표트르 대제에 의해 유럽과 가장 가까운 늪지대인 이곳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세워졌다고 한다. 예술, 문학, 음악의 도시이며 문화적 보물이 많은 곳으로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푸시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왔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 말라...' 라는 시구가 생각났다. 거리에는 인형 같은 금발 미녀들이 많아 눈길이 자주 갔다. 정말 이쁜 인형과 똑같이 생겼다. 매력적인 건축물들은 독특한 비잔틴 양식으로 각양각색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날씨 탓에 일년 중 90일, 4일에 한 번 정도 햇빛을 볼 수 있어서 문학 작품들이 서정적이며 우울하다고 한다. 러시아 속담에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양면의 도시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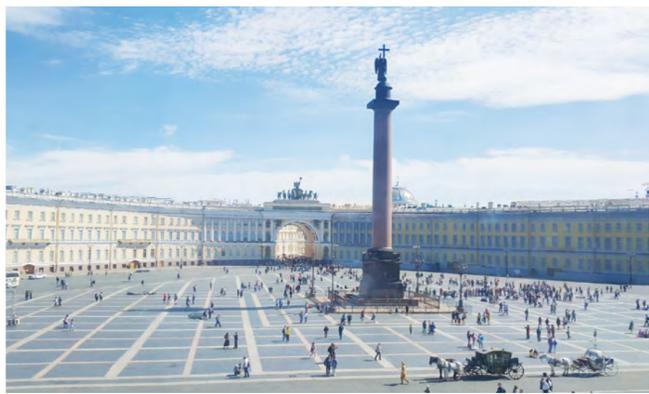
예술의 진주, 분수조각공원

이틀날에는 표트르 대제의 별궁인 여름 궁전을 관람했다. 황제들의 여름 별장으로 러시아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라고도 한다. 옆에는 큰 정원이 있는데 페트로브스키 정원이다. '표트르의 궁전' 또는 '페트로브스키정원'은 이름의 여름 궁전 옆에 자리 잡은 대규모 정원은 1704년 표트르 1세가 처음으로 구상하여 1712년부터 1725년까지 13년간 조성한 네덜란드식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된 상징적인 정원이다.

'예술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아래공원은 갖가지 분수와 가로수길, 소공전 등이 야외 조각 전시장 같은 아름다움을 뽐내고 커다란 대분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대분수는 운하까지 이어져 핀란드만으로 흘러들어가며 배들이 도착하는 해변까지 연결되어있다.

황금빛 남자 조각상들이 분수대와 함께 이어진 산책길은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막을 탄 근위대의 퍼포먼스와 퍼레이드를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

여름 궁전 건너편엔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베이스캠프가 마지막 단장을 하고 있었다. 승리를 위해 합장



하며 아들과 손으로 v자를 만들며 응원했다.

다음 여정은 성 이삭 성당. 러시아 정교회의 내부 모습은 로마 베드로 성당을 본 따서 지은 것으로 성가대의 노래 소리와 기도하는 모습, 파이프 오르간과 높은 천장의 돔 장식, 그림, 웅장함



과 예술품들이 숙연함을 느끼게 했다. 이곳을 나와서 푸시킨 동상이 있는 예술광장과 최대 변화가 네프스키대로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사진도 찍으면 여유를 부렸다. 피의 구원이란 카잔 성당은 내부보다 외부가 오히려 더 화려했으며 근대에 지어졌다.

네바 강을 배경으로 아기자기 꾸며진 레스토랑의 현지식은 보드카와 어울렸다. 이를 여정으로 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움은 네바 강 유람선 탑승으로 이국적인 건물들이 파스텔색으로 가슴에 담겨졌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한 유람선 탑승을 끝으로 모스크바로 가기위해 기차를 타야했다. 엄청난 인파로 떠밀리다 시피 하며 움직였다. 가이드는 연신 이곳의 마술사 같은 손재주를 가진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역간판이 '모스크바역'이라고 쓰여져 있다. "아니 왜?" 역 이름이 출발지 역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착지 역명을 쓴다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모스크바까지 4시간이 소요되며 삼산 열차편으로 모스크바를 향해서 출발했다.

삼산(SAPSAN)은 러시아어로 '매'라는 뜻으로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600KM 구간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고속 열차이다. 삼산 열차 내부는 한국의 KTX와 비슷하며 깨끗한 시설, 넓은 좌석과 식당 칸이 좋아 쾌적했으며 우리 일행은 보드카와 맥거리를 꺼내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모스크바를 만나러 가는 기차 여행길은 하얀 머리의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모스크바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이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모스크바 붉은 광장

러시아의 심장 붉은 광장. 붉은 광장은 국립역사박물관과 궁궐화점 및 양파머리 모양의 바실리 사원에 둘러싸여 있는데 전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던 시장이었다. 그라스나야 플로샤지, 즉 현재는 '붉은'으로 해석되는 이 광장의 명칭은 고대 러시아어로는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본 의미는 '아름다운 광장'이었으나 많은 이들은 메이데이와 혁명 기념일에 붉은색의 현수막이 국립역사박물관과 궁궐화점의 벽에 걸리고, 사람들도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광장이 온통 붉은색이 되었다는 데서 그 명칭의 유래를 찾기도 한다. 붉은 광장 주변에는 아직도 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레닌의 묘, 앞에서 언급한 불국형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 바실리 사원이 있다. 아들도 붉은 광장을 보며 한참이나 생각해 잠겨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과 서서 한 바퀴 돌아보니 파노라마 같이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 색깔 줄이 있는 알사탕 같고 아이스크림 같은 각양각색의 조화로움이 묻어나는 바실리 성당의 외부는 부조화 속의 조화로움과 무질서의 질서를 보이고 있다. 지붕들의 높이, 위치, 색깔이 다른데도 하나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바실리 성당은 타타르족 지배에서 벗어난 기념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어서 지구촌에서 최고의 명품만 취급하고 관세가 엄청 높은 국영백화점인 굼 백화점, 붉은 벽돌의 큰 박물관, 레닌 묘, 붉은 광장 내부엔 크레믈린 대통령 집무실, 일반 대제의 종무, 황제의 종, 황제의 포, 우스펜스키 사원과 성 테오도지 성당을 구경했다. 모두 황색 뽀족한 지붕들이 있어 시선을 끌었다. 크레믈린은 러시아어로 '요새'의 미하는데 15세기의 장대한 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집무실의 다양한 건축물이 있는 곳이다.

모스크바 거리가 시작되는 제로 포 인트엔 동전 던지는 사람, 줍는 사람들의 표정이 재미있다. 여기도 월드컵 마무리로 분주하다. 모스크바 시내엔 월드컵 준비를 곳곳에서 하느라 차량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이드가 말하기를, 여기는 보행자 우선이 아닌 차량 우선이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일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면 기사가 야단치며 경찰서까지도 보내진다고 한다. 안전 운행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닌가 싶다.



한국 가면 시작될 월드컵과 관계된 곳이라 관심이 있어 더 새롭게 보였다.

뒷 자석에 있던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는데 돌아보니 인상이 일그러져 있었다. 오줌을 참다못한 아들은 식은 땀이 맺혔다. 점심 때 일행들이 관한 맥주 때문인 것 같았다. "자연현상인데 우짜겠노. 아들이! 가만 비닐 봉지 줄까?" 하니 머리를 절레 절레 흔든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차량들이 많이 밀려서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가는 도중에 아무데나 차를 댈 수도 없었다. "엄마! 엄마!" 말을 못 잇는 아들이 "엄마! 손 줘! 손 줘!" 하길래 손을 내어줬더니 꼭 잡은 두 손에 땀이 흥건했다. 순간 발휘한 나의 차시벌! 역시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백으로 차가 금방 빠져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들에게는 좋은 경험과 큰 힘이 되어준 엄마. 가슴깊이 남겨질 비타민 같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지하철 역사관광 탑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1분에 한 대씩인 지하철은 지옥철이라 이름하여 수직에 가까운 경사와 꺾이 안 보이는 깊이의 지하 공간에는 천정과 벽에 역사를 간직한 작품들과 상테리아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기분은 마치 청룡열차를 타고 내려온 느낌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백조의 호수'의 배경이 되는 공원을 산책했다. 그리고 그림에도 기분은 마치 청룡열차를 타고 내려온 느낌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백조의 호수'의 배경이 되는 공원을 산책했다. 그리고 그림에도 기분은 마치 청룡열차를 타고 내려온 느낌이었다.



내려다 볼 수 있는 명소이다. 러시아 혁명 후에 레닌언덕이라 하여 국가적 영웅의 이름을 붙였으나 다시 참새언덕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폴레옹이 이곳에 올라서 모스크바 시내를 내려다보는 광경이 묘사 되었을 만큼 예로부터 이곳에서 보이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해발고도는 220m정도의 야트막한 언덕에 불과하지만 모스크바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적합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이라고 한다.

우주박물관에 가서는 은하철도 999를 부르며 관람했다. 미국을 능가하는 우주강국이며 우리나라 우주선 나로호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6시간 마다 일기변화가 있다는데 우리는 출지도 멀지도 않은 러시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사를 드렸다.

러시아 벼룩시장, '이즈마일로브'

모스크바에서의 2일째, 노보데비치 수도원과 이즈마일로브 벼룩시장 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보데비치 수도원은 러시아의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16세기에 바실리 3세가 모스크바와 스몰렌스크의 연합을 기념하여 건설한 것이 노보데비치다. 다섯 개의 돔이 있는 스몰렌스키 사원과 종루 등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16~17세기 러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또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골리, 체홉, 마야콥스키, 스타니스랍스키 등 유명인들과 크렘린 성벽에 유려나 유골이 묻히지 못했던 흐루시초프가 묻혀있는 묘지이다.

이즈마일로브 벼룩시장에서는 고치구이 등 러시아 특유의 음식을 즐겼으며 쇼핑도 즐겼다. 우리나라 벼룩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목조건물의 상가가 특색 있었으며 여러 가지 러시아 특산물 등 자질구레한 것들을 팔고 있었다. 상인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다.

일행 중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 걱정 없이 즐겁게 무사 완주를 함께 아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여행기를 마친다.

